

미국 · 말레이시아 제1차 FTA 협상 시작

2006. 7. 4

이 종 속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leejs@kiep.go.kr]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 12일~16일 페낭에서 미국과 제1차 FTA협상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모하마드 국제통상산업 차관, 미국은 Barbara Weisel 통상대표부(USTR)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18개의 이슈별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측은 자동차, 금융시장개방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선을 요구, 말레이시아측은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현재 5~32%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섬유와 의류, 고무와 목재, 도자기, 전자·전자 그리고 농산품 등의 조기 관세철폐를 제안했다. 내년 6월까지 5차례의 협상이 남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해 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 개요

-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제1차 FTA 교섭이 6월 12일~16일 페낭에서 개최됨.
 -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2003년 6월, APEC회의 중 당시 USTR 대표인 Zoellick이 양국간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체결을 제안함.
 - 양국은 2004년 5월 TIFA를 체결, 미국측 USTR은 양국간 FTA협상을 TPA(무역촉진법) 종료시점인 2007년 6월까지 타결할 예정임.
 -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미국·말레이시아 제1차 FTA협상은 18개의 이슈로 나뉘어져 토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주요쟁점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과 이해관계를 확인함.

2. 양국간 협상의 주요 내용

- 논의된 주요 이슈는 섬유와 의류, 무역에서의 기술 장벽, 지적재산권, 정부투명성, 통신, 농업, 원산지규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전자상거래 등 18개 분야임.
 -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국제통상산업 사무총장의 주도로 약 128명의 관리들로 구성, 산업단체 대표 및 전문서비스 부문에서도 참가함.
- 미국은 말레이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을 통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
 - AMCHAM와 미국상공회의소(본부)가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금융업에 있어서 현재 상업은행의 외자출자비율은 30%, 투자은행은 49% 인데 이에 대한 외자출자비율규제의 수정을 요구
 - 또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외자계 회사의 합병이나 지점설립 등의 시장접근 개선, Offshore에서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업무 실시 인정 등을 요구
 - 지적재산권문제는 방송업계에 의한 요청으로 불법 CD, DVD 단속강화, 세계지적소유권 기관(WIPO)의 디지털협정, 인터넷협정의 참가·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권한의 기간을 현재 50년에서 연장하는 것 등을 요구
 - 그리고 의약품에 있어서도 의약품 데이터 보호 등의 실시를 요구함.
- 6월 28일 미국과의 1차 FTA협상이 종료된 후 처음으로 국제통상산업 장관인 Datu Seri Rafidan Aziz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미국측에 대미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5~32%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섬유와 의류, 고무와 목재, 도자기, 전기·전자 그리고 농산품의 조기 관세철폐를 제안함.
 - 비민감품목의 관세는 빠른 시일 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제안한 반면, 민감품목은 유연성을 부여함으로 양측에 국내 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세이프가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자나 투자국의 이익 보호를 확실히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준비단계이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다루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은 서비스 공급자로 큰 시장접근을 기대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있어 서비스부문의 발전 상태와 성장 그리고 경제의 기여도를 고려한다고 언급
- 또한 FTA가 말레이시아에게 통신, 컴퓨터기반 서비스, 교육, 전문적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3. 평가

- 이번 협상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말레이시아는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품에 있어서 FTA의 특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 미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17.9 %(2005년은 19.7%)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전체 승인된 외국인투자 가운데 29.5 %(2005년은 28.8%)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는 2005년 미국의 10위의 무역 파트너이며, ASEAN 국가 중 미국의 주요 투자국임.
- 그러나 이제 막 1차 협상을 끝낸 가운데 Rafidah장관은 말레이시아 협상에 관련된 모든 관련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과 세이프가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떤 협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함.

-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문제나 서비스, 금융부문의 개방 등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
 - 또한 TPA가 종료되는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치길 원하는 미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시간제한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에게 유리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Rafidah장관을 통해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 추후 최종 FTA타결 시기는 불투명함.
- 1차 협상이 진행되는 회의장 주변 Batu Ferringhi에서 약 100명 규모의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국제통상산업 관계자에게 반대 문서를 제출함.
-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기반산업의 압박 및 노동, 식량안보를 위협한다고 호소한 한편, 제너럴의약품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HIV등의 치료비 부담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함.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내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반대여론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갈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